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쌍방실동훈련이 3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방향전방지휘소에서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며 다른 2개 방향에서의 훈련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포탄들이 목표들을 통쾌하게 명중시키는것을 보시고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포병저격수라는 말이 나올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쌍방실동훈련의 우결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작전과 전투를 능숙히 지휘

할수 있도록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주도성과 자립성,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싸움마당에서 군인들을 승리에로 불러일으킬수 있게 당정치사업을 전쟁환경에 접근시키는데 대한 문제,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훈련강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훈련총화를 전투총화처럼 엄격히 진행할데 대한 문제, 천연요새를 이루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임의의 계선에서 견고한 방어를 조직할수 있게 미리 준비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맞게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스런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을 불의에 도로비행장에 호출하시고 현지에서 전투비행사들의 비행술을 판정검열하시였다.

지심을 구르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푸른 하늘을 누비고 날아온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맴시있게 수행하며 조선로동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조종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어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 리찰목조작에 대한 판정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추격기들을 손바닥놀리듯 자유자재로 조종하는데 정말 불만 하다고, 생소하고 불리한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찰목조작도 정말 잘한다고 하시면서 검열비행훈련을 불시에 조직하였는데 훈련이 아

주 잘되었다고, 믿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투비행사들의 훈련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국의 령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비행사들이 높은 사상적각오를 안고 비행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훈련목표를 높이 세우고 훈련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군악단창립 일흔돛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군악단창립 일흔돛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주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분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백절불굴의 투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장중한 울림과 경쾌하고 호소적이면서도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선율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휘날리며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세계와 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연주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더치는 열광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출연자

들이 훌륭한 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창립 일흔돛을 맞이한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전체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나라의 첫 중앙간부양성기지로 창립해주신 평양학원개원식에서 첫 군악소리를 울린 때로부터 장장 70년간 조선인민군군악단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려 일으키며 자랑스러운 행로를 걸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은 국가의 얼굴이고 우리 군대의 상징이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

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위력한 무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군악, 혁명군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군악단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 일군들과 창작가, 연주가들이 혁명군악으로 조선로동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령장

반제자주, 조국수호의 기상과 떨적의 의지가 어린 위대한 령장의 발걸음이 강산을 울리고있다.

날과 달을 이어 조국방선을 총횡무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힘찬 발걸음 따라 인민군대의 포사격장, 쌍방실동훈련장, 전투비행훈련장들에서 《적진》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는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있다.

전쟁에 대처한 싸움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배짱에 의하여 조국방위의 진지와 전호, 초소들은 무적의 서리발총검을 이루고있다.

적대세력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린다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것이라는것이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 군대의 단호한 의지이다.

강도를 두 동강낸 군사분계선을 거느리고 선 민족분렬의 상징 판문점에는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하

신 위대한 령장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3월 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 정의와 부정의의 총구가 낮이나 밤이나 항시 분리선을 경계로하여 맞서있는 판문점,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호전세력과의 대결로 흐르는 공기마저 팽팽한 최전방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대낮에 판문각 로대에서 적진을 한눈에 굽어보시며 적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군인들에게 판문점의 전초병들은 적들과 항시적으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만큼 언제나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판문각, 통일각,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장 등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초병들이 조국의 판문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에 우리 인민이 발편잠을 자고 최고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믿음을 주시며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시기에 단행하신 그이의 판문점시찰은 이 땅에서 적대세력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종국적과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선언한 강인담대한 결단과 의지의 상징이였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은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무적의 힘과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었고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며 전쟁연습에 광분한 적대세력은 공화국의 배심 든든한 자위력앞에 기가 꺾이우고말았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수호를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걸음은 판문점만이 아니라 무도, 장재도 등 최남단의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과 산세험한 고지의 감시소에 이르

기까지 하늘, 땅, 바다초소들과 포연자욱한 훈련장 그 어디나 이어졌다. 가파로운 152급이 험한 령길을 지나 오성산의 전방지휘소, 적진까지의 거리가 350m밖에 안되는 까칠봉초소에도 령장의 자욱이 새겨졌다. 해병들의 잠수함에도 승선하시어 함해술도 가르쳐주시며 망망대해의 작전수역에서 수중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동훈련을 지도하신 원수님이시였다. 현대전에서 포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인민군포병대회에도 참석하시어 포병무력은 인민군대의 화력타격의 기본력량이고 포병의 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라고 하시면서 모든 포병부대, 구분대들이 모성적인 싸움준비를 갖추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무장한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전략과 령군술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

중작전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에서도 상대를 일격에 제압할수 있는 단단의 싸움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중타격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신형반함선로켓시험발사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각종 훈련들은 무적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인민군대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나라의 국방력이 비상히 강화되어 백두밀림의 연길폭탄과 평천리의 기관단총으로 시작된 자위의 병기창은 오늘 적대세력들을 전멸케 하는 대륙간단도미싸일, 잠수함수중탄도탄과 함께 수소탄까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게 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첨예한 시기에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통쾌하게 진행된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고 민족의 대경사이다. 이 땅에서 또다시 우리 겨레가 바라지 않는 전쟁이 터진다면 상용전쟁

이든 핵전쟁이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맞대응하여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에게 종국적멸망의 폐지를 써주자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징벌의지이다.

력사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다는것이 승자의 지위와 패자의 처지가 명백한 반세기이상을 헤아리는 조미대결사가 보여주는 정의이다.

맞선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패배는 불가피한 법이다.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의 전통과 적대세력이 당한 수치와 패망의 전통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인민의 필승의 신념이고 락판이다.

적대세력이 끝끝내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무진막강한 총대와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세기를 이어온 승리의 역사를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전체 군대와 인민의 총천한 열기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정의와 승리는 위대한 령장을 모신 공화국의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 인민을 위해 바치신 거룩한 생애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미래과학자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늘어나는 현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창조하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도록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국가적혜택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생의 목표로 삼고 실천에 구현하신 애국신조이다.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장군님의 인민관이고 우리 나라에서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한 당이고 국가이며 우리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정치인만큼 모든것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뜻이고 의도였다.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

이것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제품 하나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리도 기뻐하시었고 살림집시공이나 공장관리운명을 알아보실 때에도 인민들의 생활상조건과 생산환경부터 헤아리시였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이 있었다.

묘향산과 룡악산의 탐승도로, 만수대거리와 갈마극장, 마전호텔, 개선청년공원유회

장, 보통문거리고기상점, 대동강식료공장을 비롯한 유원지, 주택지구, 문화생활기지, 공장, 상업봉사기지들마다에 인민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장군님의 헌신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제일 좋은것, 가장 훌륭한것을 인민들이 향유하도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손길은 인민자가 붙은 극장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시며 마지막유산으로 남기신 인민극장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열세해전 8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품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몇가지 색깔의 연지를 보시고 녀성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화장품은 수요에는 관계없이 몇가지 생산하여 상점에 내놓고 이것밖에 없으면 사다쓰라는 식으로 생산하여서는 안된다고, 질적수요에 관계없이 량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만 하지 말고 질이 기본인만큼 하나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을 나서시면서 평양화장품공장은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명실공히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으로서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신것도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가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는 당부였다.

사회주의를 선택한것도 인민 자신이고 그 기초도 인민이기 에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크나작으나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시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3월 삼수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내가 건설장에 온것은 언제를 어느 정도 쌓았는가를 불뿐 아니라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건설에 대하여 알아보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민들을 원래 살던 집보다 더 멋있는 새 집으로 이사시킨 다음 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그이께서는 밤하늘에 뿌려지는 축포의 불보라를 보시면서도 나는 우리 인민에게 저축포의 천만가지 색깔과 같은 행복을 반드시 안겨주자고 한다 하고하시였고 어느 양어장의 못에서 물고기들이 자신에게로 모여드는 모양을 보시고는 이 물고기떼가 나에게로가 아니라 다 인민들에게로 갔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수복이 아니라 평생 잠바옷을 입으시였다. 인민들과 친숙해진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면서 나는 저 원수복보다 인민들이 다는 영웅메달을 더 크게 생각한다고, 원수복도 그 영웅메달이 있어 빛나는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오늘도 최우선, 절대적높이에 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향유자이고 인민이 모든것의 창조자이다. 현대적인 공장들로부터 산업기지를, 웅장화려한 주택지구들과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 그리고 상업봉사기지들에 이르기까지 수풀처럼 일떠서는 모든 창조물들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인민중시의 사상과 정책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향유하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확고한 결심,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장쾌한 핵퇴성도 울리고 《광명성-4》호 지구관측위성도 성공적으로 발사되는것과 같은 사변들이 다게 단으로 일어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이 실현되는 강성부흥의 래일이 다가오고있다.

김학철

## 자위의 군력을 강화하는 길에서

### 신형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지난해 11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사격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은 현대화된 고사로켓들의 기술상태와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실전능력을 검열관정하며 다종의 신형 고사로켓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반항공

부문의 싸움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었다.

그날 사격훈련을 보신 원수님께서서는 고사로켓의 현대화, 정밀화를 계속 다 그쳐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종의 신형 고사로켓들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

### 훈련을 실전처럼

과 동작을 능란하게 수행하며 지정된 락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여 《적진》을 단숨에 타고앉았다. 그들의 훈련을 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야간조건에서도 전투원들과 비행사들이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담성과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정점강하

시였다. 그러시면서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강도높은 훈련들을 통하여 고사로켓트병들의 실전능력을 높이고 국방과학부문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종의 신형고사로켓트개발을 보다 적극화하여 적들의 그 어떤 공중타격으로부터도 조국의 영광을 철통같이 보위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네해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연평도에 각종 무기들을 증강배비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던 그 무렵 섬방어대

의 싸움준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그곳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섬방어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이나 지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

훈련을 마친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언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조성되어도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훈련을 실전처럼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라도 떨군다면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만약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하시였다. 섬멸적반타격으로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본사기자

##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친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고국을 방문하고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다. 더우기 새해 정초 공화국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데 이어 련이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소식에 접하고 크게 감격했다.

100여년전만 해도 국력이 약해 강대국들의 통략물로 되고 지지리 천대와 멸시만을 받았던 조선민족이 아닌가.

그렇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강대국들의 독점물로 되어있는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인공지구위성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쏘아올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로운 일인가. 정말

이지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오늘처럼 가슴뿌듯이 느껴본적은 없다.

오늘의 이 기쁨, 이 영광을 위해 한평생 험한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찢고 그분의 유훈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고있는 고국인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다.

고국에 와서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모습에 또 한번 감동했다. 창전거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평양국제비행장,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정말이지 하나같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것들이고 이 모든것들이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최첨단을 달리고있는 고국의 과학기술도 속도전이요, 고국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며 누려가고있는것도 속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제재하고 압살해보려 발악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실천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한 고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재카나다동포 진 혁

# 《광명성》 - 누리에 빛나는 그 이름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광활한 우주를 누비며 아름다운 비행운을 그리고있다.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세계의 경탄과 놀라움, 부러움속에 지구를 돌고도는 공화국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이다.

우주강국의 전철에 당당히 들어선 남다른 기쁨과 환희가 나날이 커가는 속에 사람들은 지구관측위성의 신성한 그 이름 《광명성》을 외우고 또 외우고있다.

《광명성》,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노라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어버이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시며 쓰신 《광명성찬가》의 구절구절이 떠오른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  
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신통  
인가  
문무총호 경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일찌기 항일의 총성 울리는 백두산에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조선을 누리에 떨칠 담대한 결심을 안으시고 한생을 불같이 사신 그이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선을 세계에 빛내이시려고 자신의 열과 정, 심신을 강그리 불태우시며 이 땅우에 부강번영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었다.

맹세는 완강한 인내와 비상한 열정, 뚜렷한 목표와 빛나는 실천을 요구한다. 지난 세기 90년대,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 제국주의자들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고립압살책등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다른 나라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연히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우신 조국, 말기고가신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야 한다는 결사각오의 의지와 철의 신념이 그의 심장속에 고동치셨기에 보통의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할수 없는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웃으며 헤쳐가신 것이다.

그 길우에서 공화국의 군력은 억척같이 다져지고 숨죽은 공장과 기업소들이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것이 것처럼 어렵고 부족한 때에 그이께서 나라의 우주산업건설을 구상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신줄은 미처다 몰랐다.

감회도 새로운 주제 87 (1998)년 8월 31일, 공화국 창건 50돐을 며칠 앞둔 이

날 12시 07분, 주제조선의 첫 위성을 실은 다계단운반로켓트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86° 방향으로 발사되어 4분 53초만에 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률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지구상에 전송되었다.

너무도 놀라운 소식, 너무도

충격적인 사변앞에 세계가 놀라와하였고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었다.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인민들에게 천백마디의 말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무한대한 힘과 밝은 래일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첫 위성, 조선의 사회주의봉파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군사적위협과 압살의 도수를 높이던 적대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며 솟아오른 《광명성-1》호였다.

이 경이적인 기적을 마련하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

모든것이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나날 위성개발자들에게 온갖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다 마련해주시였고 연구방향과 종자까지 주시면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연구사업에서 실패하였을 때에는 락심하지 말라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자신께서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트락토르 1호도 뒤로 가지 않았는가, 용기를 내어 실패원인을 찾으라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할것이라고 힘과 용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또다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에 쏘아올리던 그날에는 몸소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나오시여 발사전과정을 관찰하신 위대한 장군님.

《광명성-2》호의 성과적 진입으로 모두가 환희에 넘쳐 열싸안고 기뻐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굽을 닦고계시었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

고 빛내주시려고 그이께서 넘고 헤치신 사신의 고비는 얼마이고 지새우신 낮과 밤은 그 얼마였는가.

철령과 오성산, 판문점과 초도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병사들을 찾아 가고 또 가신 험준한 전선길들과 나라가 것처럼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던 그때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현대화에 돌리시던 일이며 자강도의 6 000여리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락원의 길을 열어가시던 피어린 로정,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내려치는 북방의 철의 기지를 찾으시여 성강의 봉화를 지켜주시던 잊지 못할 수많은 날들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그이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 다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려 그이께서는 언제나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며 끝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헤쳐가시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저 멀리 천하제일강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선견지명의 천재적예지와 완강한 의지력으로 모진 고난을 한몸으로 막으시며 우주로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영웅, 이 땅에 밀려드는 침략의 검은구름을 쳐갈기며 우리의 포부와 리상, 우리의 무한대한 기적을 지켜주는 영원한 수호의 광명성, 영원한 창조의 광명성을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머리우에 띄워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정복의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

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의 장쾌한 위성발사성공에 이어 올해 또다시 눈부신 《광명성》비행운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시었다.

《광명성-4》호의 성과적 발사를 위해 위성발사장을 찾고 또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견지명의 천재적예지와 완강한 의지력으로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조국이 우주강국으로 존엄떨치게 될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시는데 대해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면서 민족의 넋을 안고 민족의 자존과 권위를 싣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한껏 뽐내며 만리대공우주로 자랑찬 주제위성을 쏘올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마음속에는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남먼저 초행길을 걸으시며 우주정복의 진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생각이 짝차게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광명성-4》호 운반로켓의 동체에 《광명성》이라고 쓰도록 하시고 글체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데서 생의 보람과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결심과 의지대로 위성발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 관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우에 강성번영할 래일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며 《광명성》, 그 이름 세계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 봉



## 조국을 따르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2월에 평양 대극장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제일조선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2월의 축복님친 내 조국의 밝은 미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의 각계층 군중들이 매일같이 극장을 찾아와 재일조선인들이 성의껏 준비하여 펼친 다채로운 종합공연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동포예술인들이 펼친 공연은 내 나라, 내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심과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하고 모진 광풍이 불어와도 오로지 어머니조국과 마음과 숨결도, 운명도 함께 하려는 재일

동포들의 결의를 담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서장 《장군님 우러러 영광 드립니다》로 공연의 막을 올린 출연자들은 남성독창 《동지애의 노래》, 장새남독주 《매혹과 흥모》, 녀성독창 《그리움의 흰눈송이》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무대에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3인무 《하나》와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짙게 풍기며 공연분위기를 이채롭게 한 5인무 《장고춤》, 소해금독주 《종다리》도 울랐다.

몸은 비록 찬바람부는 이역땅에서 살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마음속에 언제나 조국을 안고 살려는 재일동포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남성독창 《조국은 원수님》, 《가리마 백두산으로》 등의 곡목들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공화국의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리영수 가수가 구성진 목소리로 절절하게 부른 《내 마음 팔지 않으리》는 관람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었다.

... 좋아도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의 총련에서 어려워도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의 총련에서 내 언제나 살리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따르듯처럼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가수의 절절한 심장의 노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일본땅에서 반공화국광풍이 불어치고 있지만 조선민족의 얼을 지키고 공화국의 해외공민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며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뒬뒬하고 강한 모습을 한껏 떠올리었다.

세계를 격동시킨 선군조선의 특대사변들을 계기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에 편승한 일본당국은 오늘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조치를 취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힘들세라 주저앉을세라 힘을 주며 값높은 삶의 길

로 손잡아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의 품이 있기에 동포들은 어려워도 힘겨워도 사회주의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일련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 나갈 일념에 넘쳐있다.

그 철석의 신념과 불굴의 기상이 노래와 춤에 담겨져 더욱 눈길을 끌고 감동을 자아낸 공연이였다.

세련된 기교와 풍부한 성량, 재인 안살들로 민족적색채가 짙은 종목들을 련이어 펼쳐놓으며 관록있는 해외교포예술 단체의 면모를 과시하는 출연자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백두광명성이 높이 솟아오른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이 있어 태양민족의 부강한 오늘과 래일이 있음을 사상에술적으로 특색있게 펼쳐놓여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 공연은 사상과 령도에서 제일이시고 풍모와 인덕에서도 제일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선군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김철 진

## 하늘에 닿은 조국의 위용

나는 조국에 자주 와보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울렁이고 설레인적은 없었다. 새해정초에 우리 조국이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로 핵강국의 공민들로 핵강국의 공민 된 긍지를 한껏 터뜨린 우리 동포들이다. 그런데 이번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하려고 중국 심양에 도착해보니 조선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우주로 날라올랐다는 환희의 보도가 또 전해졌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기적이 연속 일어나는 내 조국이다. 하늘에 닿은 조국의 존엄과 위용에 가슴 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이번 조국방문의 나날들도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었다. 특히 미래파

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난 미래과학자거리의 멋진 살림집들이 그 모양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일등급으로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조국이 위력하구나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했다.

바로 이 모든것을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기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고 하니 그의 넓으신 안목과 원대한 뜻을 대변에 느낄수 있었다. 령도자가 국가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에 이렇게 깊은 관심과 정력을 기울이시기때문에 나라의 면모가 급속도로 일신되고 국력은 나날이 강해지고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적권리행사를 놓고 입방아를 찧으며 《제재》를 떠드는데 그들이 선군조선의 위력에 얼마나 공포에 질려있는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본다. 제재를 해보야 조금도 끄떡없을 공화국이다.

나는 돌아가면 이번에도 고 긴 소중한 모든것을 우리 동포들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동포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애국활동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다.

나는 강대한 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위대한 조국을 떠받드는 주춧돌로 살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념안시 지부장 박상 진



# 민족의 최고존엄을 결사옹위하려는 천만의 의지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조종과 지휘아래 감히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라는것을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핵동력잠수함과 스텔스전투폭격기 등 첨단핵타격수단들과 미군특수부대들을 련이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다.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 침략군 특근, 해군, 해병대, 공

페당은 베라살포망동이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는 남조선각계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표현의 자유》를 떠들며 지금도 인간 쓰레기들을 계속 베라살포작전에 내몰고있으며 최근시기에는 군부를 직접 동원하여 이른바 대북심리전방송까지 벌려놓고있다. 특하면 《아버이런합》이니, 《고엽제전우회》니 하는 극우

## 조선은 용서치 않는다

보수강패들을 서울한복판에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감행한것도 보수패당이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악담을 늘어놓는것도 다름아닌 박근혜를 위시한 남조선당국자들이다. 지어 보수패당은 공화국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두고 《공포정치》니 뭐니 하는 거짓말까지 해대며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을 호리고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쌓은 성벽을 허물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어왔다. 그 어떤 《제재》로도, 날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선전과 국제무대에서의 거짓말로도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허물수 없게

되자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상전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위협천만한 군사적도박으로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겠다는것은 정신병자의 착란에 불과하다는것을 남조선보수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감히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민족의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려고 날뛰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를 담아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가 누구든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할것이라는것을. 그 첫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것을. 위대한 태양기가 빛나는 조선은 적대세력의 특대형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건드리려는 미친짓에 매달리다가는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진동하고있다. 손바닥으로 감히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자들, 이 땅, 이 하늘아래서 살 자격을 상실한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퇴성이 되어 이 나라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면 따뜻한 빛과 열을 주는 태양이 빛나고있음을 보게 될것이다. 바로 그 태양이 있어 지구도 있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태양을 떨어가보려는것과 같은 천하망랑질을 부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가 바로 미국과 만고역적 박근혜패당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게 된 미국은 어리석게도 그 무슨 《참수작전》따위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해쳐보려고 미륙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부대들과 그 무슨 《죽집계식타격》에 동원되는

침략부력들을 남조선에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여기에 산송장에 불과한 남조선의 호전세력까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치고있다. 《참수작전》?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만 해도 치가 떨 일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수뇌부는 곧 운명의 전부로, 태양으로 되고 있다. 힘들고 배고파도 그 품이 있어 힘들줄 모르고 최후승리를 락관하며 신심과 용기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그런데 대조선적대시압살광기가 폴수에 짝 찬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굴종세력이 감히 그 거룩한 태양을 가리우려고하고있으니 천벌을 받아도 백번천번 받아야 할 특대형죄악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집하고 너무도 본격하여 천하불한당들을 모조리 요정내야 한다며 징벌의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려는 적대세력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당장 백악관과 청와대를 하늘로 날려

보내야 한다. 이것이 서리발친 공화국군민의 증오의 웨침이다. 공화국에는 침략세력을 단호히 요정별 강위력한 타격수단들이 다 갖추어져있다. 자위의 핵억제력을 틀어쥔 조선,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조선을 상대로 《참수작전》을 떠벌이며 달려드는것이야말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목을 내대는것과 같은 미련하고 미친짓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망동을 시도한다면 그 순간은 곧 지구가 깨어져나가고 최악의 미국땅, 청와대가 통채로 불바다가 되는 날이 될것이다. 태양이 없는 지구는 없다. 미국과 그의 충실한 노복인 박근혜역적패당은 선군조선에서 울리는 이 엄숙한 선언을 무시히 듣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를것이며 그 두리에 천경만경의 성새를 쌓고 최후승리의 한길로 굴함없이, 기운차게 내달려갈것이다. 공화국이 가는 정의의 길, 승리의 앞길을 막을자는 이 행성에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신기복

《죽집계식타격》에 동원되는

## || 각 계 층 군 중 들 의 성 토 ||

### 우리 운명의 러전을 지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집하고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다.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안겨주는 우리 삶, 우리 운명의 영원한 터전인 공화국이자 우리 원수님의 태양의 품이다. 이런 태양의 품을 감히 넘보며 《참수작전》

이요, 《체제붕괴》요 하고 떠들어댄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내 나이 일흔이지만 무엄하게도 하늘의 태양에 대고 샅대질하는 미제와 박근혜패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리는 최후결전의 맨 앞장에 서겠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박사 정규진

### 기어 이 징벌 하리라

요즘 미제와 남조선피뢰패당이 늘어대는 꼴을 보니 TV런속극 《징벌》의 대사가 생각난다. 박지섭: 《년 날 왜 기어코 잡겠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그느냐?》 주인공 강진혁: 《태양에 돌을 던진 네놈이 그래 이 하늘아래서 감히 무사할줄 알았느냐.》 력사는 지금으로부터 꼭 70년전인 1946년 3월 1일 평양역전광장에서 진행된 3.1인민봉기 27주년 평안

남도 경축대회 주석단에 반동놈들이 수류탄을 던진 위험천만한 사건을 기록하고있다. 그때 보안서원이었던 나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원수놈들을 끝까지 따라가 징벌하는 작전에 참가하였었다. 미제와 피뢰역적패당은 민족이 대국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참을수 없이 모독하여왔다.

산천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보려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기도이고 발악적책동이다. 《참수작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 견딜수 없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

### 전쟁로병 방세호 전벌을 맞을 죄악중의 죄악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과 피뢰패당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 저 하늘의 눈부신 태양을 《체제붕괴》를 노린 《참수작전》따위로 어찌보겠다는것은 천벌을 맞을 죄악중의 죄악이다.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

### 거름더미에 처넣겠다

미국과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참수작전》따위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찌보려 한다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겠다는것만

대들과 청년들, 군인들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어찌보려는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역적패당을 하늘땅 끝까지라도 기어이 따라가서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 고야말것이다. 전쟁로병 방세호

### 인 최고존엄에 대해 샅대질 하는자들은 선군조선의 무자비한 징벌을 피할 자리가 없다.

제 죽을줄 모르고 달려들려는 저 미친개들을 떨어 놓는 지옥의 가마에 처넣어야 한다. 김만유병원 의사 김철환

### 최후승리를 안아오리라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까지 어찌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품고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려

로써 쌀로써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해 나가겠다.

### 평양시 순안구역 대양 협동농장 분조장 박대철

### 청와대는 우리의 조준경안에 있다

미제와 박근혜패당이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려 한다는 소식에 집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원수적멸의 피로 끓어번지고있다. 세계가 가져본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갖춘 우리 혁명무력이다. 공화국은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 최후승리를 안아오리라

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조지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를 놓고 히스레리적인 반공을 보이며 온갖 압박

과 《제재》소동에 미쳐 날뛰는것도 성차지 않아 각종 핵전쟁장비들과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의 특수작전무력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미친 승냥이처럼 날뛰고있다.

그러나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공화국의 힘이 얼마나 무진막강한지 적들은 이제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비참한 패배의 교훈을 망각하고 감히 무모한 불장난을 한다면 우리는 버리고 버려온 복수의 총검을 높이 들고 침략의 무리들을 단호히 요정내교야말것이다.

하여 지금껏 쌓이고 쌓여온 민족의 한을 풀고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교야말것이다.

로농적위군 대원 주철민



세론

# 《대남도발》이 아니라 대북도발

남조선에서 그 무슨 《북의 도발》라령이 실 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집권자가 나서서 《북의 무모한 도발》을 운 운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을 떠들어대고 그 폭조에 맞추어 청와대, 《새누리당》, 정보원, 통일부 등이 모두 떨쳐나 《무력도발가능성》, 《테로가능성》, 《땅굴리용》설 등 별의 별 잡소리들을 다 늘어 놓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전쟁 수단과 병력을 끌어들이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그들의 범죄적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고 민심의 강력 한 반대에 직면한 《테로방지방》을 기어이 통

파시켜 동족대결과 파쇼 통치에 악용하려는 불순 한 기도의 산물이며 동 족대결에 환장한 반역부 리들의 피해망상증의 발 로이다.

공화국의 《조선말사 전》에는 《도발》이라 는 뜻이 《부정적행동이나 범죄적사건을 버르집 어 일으키는것》, 또는 《남에게 고의적으로 곁 고드는것》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짜도발은 누가 하는가 하는것이다.

동족의 정정당당한 자 주적권리행사, 민족의 대 경사를 같이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놀부심보로 갖 은 훼방을 다하며 외세 에 추종하여 동족을 해

치려고 《제재》소동을 벌리고 핵잠수함을 비롯 한 미국의 각종 전략핵 타격수단들을 마구 끌어 들어 조선반도에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고있는 남 조선의 위정자들이다. 지금 이 시각도 《잠수 작전》이니, 《평양점 령》이니 하며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우롱 하고 해치려드느것이야 말로 도발중의 도발이고 용서 못할 특대형도발행 위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도발》타령을 요란스레 늘어놓는 배경에는 오는 4월에 진행되는 《국회》 의원선거도 놓여있다. 력대로 선거를 앞두고 《북의 도발》설을 만들 어내는것은 보수패당의

고질적인 버릇이다. 지금 안팎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현 집권세력에게는 보수심리를 자극할 새로 운 《북풍》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도 때 도 없이 더욱 목청을 든 구어 《북위협》, 《북도 발》을 떠들어댄다.

저들의 추악한 권력야 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짓도 가리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당국이야말로 동족대결을 생 리로 하고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수가 없는 최악의 무리들이 아닐수 없다.

이런자들에게는 반드시 력사와 민심의 준엄 한 판결이 내려지기마련 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사대매국노의 역겨운 자화사찬

얼마전 남조선에서 청와대가 현 《정권》출범 3년 계기로 이 기간에 저들이 거둔 《성과》자료를 발표 하겠다고 한다.

거기서 청와대는 3년간 《일자 리창출》과 《맞춤형복지도입》, 《경제민주화》, 《원칙》에 의한 《남북관계정상 리》, 《국민소 통활성화》 등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떠들었다.

《경제민주화》의 미명하에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실업자 로 만드는 로동 악법들로 수많은 로동자들을 거리 로 내쫓고 《재정 악화》의 미명하 에 《보육대란》을 일으키고 《원칙》을 운운하며 북남관계를 결단 내고도 그것을 《성과》라고 하니 청와대의 발표 는 그대로 180° 거꾸로 들어 야 정확히 진실에 들어 맞는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 는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청와대는 외교분야에서 지난해말 민 족의 존엄을 훼손하고 일 본에게 면죄부를 준 일본 군성노예문제에 관한 《합 의》를 《성과》로 내세웠 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 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일본 의 법적책임문제가 빠져 있었고 더우기는 피해자들 을 우롱하는 몇푼의 《지 원금》으로 일본의 성노 예범죄를 무마시키려는 반민족적범죄행위를 두고 《성과》라고 자화자찬하 니 이런 쓸개빠진것이 또 어디 있었는가.

그 애비에 그 딸이라고 1960년대 《5.16군사쿠데 타》로 《정권》을 강탈 한 《유신》독재자는 몇 푼의 돈으로 남조선일본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의 과거죄악을 얼렁뚱땅 넘겨치우더니 오늘에 와서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그 딸은 한수 더 뛰어넘어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일본군성노예문제까지 몇 푼의 돈에 백지화하고 그 무슨 《성과》로 자화자찬 하고있으니 조선민족구성 원이라면 누구나 다 통분 할 노릇이 아닐수 없다.

청와대는 3년동안에 거 둔 《성과》중의 하나로 남조선군의 역할을 높여 《전시작전권전환을 이루 어냈다.》고 뉘소리를 쳤

다. 남조선에서 《참여정 부》때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에 미국이 남조선에 넘겨준다고 합의한것을 그 이후 친미보수분자인 리명박역도가 집권하면서 그 누구의 《위협》을 떠 들며 2015년까지 미루었다 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 실이다. 그런데 현 남조 선보수집권세력은 2014년 10월에 있는 제46차 남 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 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무기한 연장 하였다. 동족대결을 위해 남조선의 군사주권을 외 세에 통째로 맡기고도 전 시작전권전환을 실현했다 고 시퍼런 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마구 늘어놓는 이런 정신병자가 또 어디 에 있었는가. 박근혜 《정 권》이야말로 친미에 미 쳐도 더럽게 미쳤다.

을사오적을 평가하는 반민족적죄악을 눈섭 하 나 까딱하지 않고 마구 저지르고도 그것을 《성 과》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인간오 작품들의 집단, 회세의 매 국노들의 집합체이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 권》의 3년죄악을 《치 적》으로 분칠하려 해도 그것은 저들의 죄악을 결 산하는 심판묵으로 될뿐 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망 동이 조선반도정세를 극도 로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 국은 공화국을 《위협》하려는 어리석은 타산밑 에 미국과 야합하여 《련 합전시지원훈련》과 《확 장억제수단운용연습》 등 북침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조선반도유사시 미중원 군을 신속히 전개하여 전 쟁지속능력을 키우며 그 무슨 《억제》의 간판밑 에 공화국을 기습공격하 기 위한 이 불량난소동 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위험을 증대시키 고 새로운 전쟁의 도화

선에 기어이 불을 달리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극히 무모한 기도의 발로 이다.

공화국이 정당한 자주 적권리를 행사하고 위력 이 강화되는데 질겁한 남 조선당국은 리성을 잃고 호전광의 본색을 여지없 이 드러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 의 《도발》과 《압력》을 운운하며 미국과 함께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 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 는가 하면 특수부대와 핵 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침략무력과 핵전쟁살인장 비들을 조선반도에 끌어 들이고있다.

오는 3월초부터는 미국 과 《키 리졸브》, 《독수 리》 합동군사연습을 최 대규모로 벌려놓으려 하 고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불량 난소동들은 가득이나 격 화된 조선반도정세를 예 측할수 없는 국면으로 몰 아가고있다.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사상최대로 고조되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 훈련과 관련하여 《확고 한 동맹관계의 과시》니 뭐니 하고 민중이 속대끝 에 오른것만큼이나 기고 만장해하고있다.

초보적인 정세 감각도 없고 상전의 허장성세에

기고만장하여 제 죽을줄 도 모르고 전쟁도발책동 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 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외세의 북침전쟁돌격대 가 되어 민족의 운명을 해치려드느 반역 의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군사적도 전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주권수호를 위한 최후 결전의지를 더욱 역세게 다지게 해줄뿐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제 가 지른 불길에 타죽기마 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비참한 자멸 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똑 히 알아야 한다.

강현철

## 자멸을 재촉하는 불량난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최 악의 전쟁접경상태로 치 단고있다. 동족대결을 추 구하는 남조선당국이 년 초부터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무모한 북침전쟁 책동광기는 이미 도수를 넘어섰다. 남조선의 호 전세력들이 미국과 야합 하여 올해에 강행하려

자주권을 유린하는 란폭하게 범죄행위

내외호전세력들이 강 행하려 하는 《키 리졸 브》 합동군사연습은 종전 의 《련합전시지원연습》 의 명칭을 바꾼 대규모 북 침전쟁연습으로서 《유사 시》 해외로부터 증강되 는 미군병력을 조선전선 에 신속히 투입전개하고 남조선군과의 합동으로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가상한 매우 도발 적인 불량난이며 《독수 리》 합동군사연습은 대규 모의 야외기동훈련으로서 전형적인 핵공격작전연습 으로 알려져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이 벌리는 북침전쟁 연습소동은 국제법에 의 하여 공인된 자주권존중 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 린으로 된다.

오늘날 다른 나라의 자 주권을 존중하는것은 세 계의 모든 국가들에 의하 여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되고있다.

《유엔헌장》 제2조에

《키 리졸브》, 《독수 리》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조 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

모든 유엔성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 의 정치적독립을 반대하 여 힘을 사용할수 없다 고 규정되어있다. 이외 에도 1933년에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무에 관한 선언》과 그 이후시기에 채택된 《국 제법의 원칙에 관한 선 언》, 《국제형사재판소 에 관한 로마규정》 등 에서도 힘에 의한 위협 이나 무력사용으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 지 않는것을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다시금 확인하였다.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 된 이러한 원칙은 국제 관계에서 그 어떤 개별적 인 국가들이 절대로 부정 하지나 변경할수 없는 절 대불변의 원칙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오늘 날 남조선에서 광란적으

로 벌어지고있는 《키 리 졸브》, 《독수리》를 비 롯한 합동군사연습은 명 백히 국제법상 자주권존 중의 원칙을 란폭하게 유 린하는 국제범죄이다.

물론 미국과 남조선군 부호전광들은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 마다 《년례적》인 《방 어훈련》이라고 요란히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여 기에 투입되는 병력과 무 장장비상태라든가, 훈련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방어 적인 훈련이 아니라 명백 북침핵공격훈련이라는것 을 알수 있다.

최근 전쟁연습에 투입 되는 핵항공모함이나 핵 추진잠수함과 같은 최신 전쟁장비들은 그 사명이 방어에 있는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격적성격의 무 장장비들이다. 또 실지로 이러한 전쟁장비들은 미 국이 지난 시기 감행한 만 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살인장비들이다.

미국이 훈련의 명색으 로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 함까지 끌어들이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훈련 이 《방어》를 위한 《년 례적》인것이라는것이 얼 마나 허황한 꾀변인가를 알수 있다. 이는 침략전쟁

연습이 그 무슨 《위협》 을 구실로 공화국을 침략 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계 획적인 전쟁연습이라는것 을 말해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 것은 침략전쟁연습이 해 당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위협의 도수를 넘어 계획 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단 계에로 넘어가고있는것 이다.

올해 남조선에서 벌어 지는 《키 리졸브》, 《독 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미 국과 남조선은 지금까지 침략적인 작전계획 《5027》 과 《5029》, 《4D》 작전 계획까지 모두 통합된 종 합적인 작전계획 《5015》

조미쌍방조약을 무효화시킨 불법행위

미국이 공화국을 반대 하여 벌리고있는 침략전 쟁연습은 국제적인 법규 범뿐아니라 조미쌍방사이 의 조약에 대한 란폭한 유 린으로서 용서할수 없는 불법행위로 된다. 쌍방 조약은 두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제법 상 의무를 지는 조약 이다.

미국은 저들이 수락한 조약들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란폭하게 유린

를 적용하려 하고있다.

침략적인 작전계획이 조선반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이 다. 거듭이 자주 끼면 비 가 오기마련이듯이 침략 적인 핵전쟁장비들을 남 조선에 끌어들여 벌리는 핵전쟁연습이 언제 실천 계에로 넘어갈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

제반 사실들은 침략전 쟁연습소동이 힘으로 다 른 나라의 자주권을 위 협하지 말데 대한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적문 건들에 규정된 요구를 묵 살하는 명백한 국제범죄 로 된다는것을 웅변해주 고있다.

조미쌍방조약을 무효화시킨 불법행위

미국은 1957년에 들어 와 조선경외로부터 모든 무장장비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한 조선정전 협정 제13항 2목의 과 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 고 핵무기를 비롯한 각 종 전쟁수단과 살인무기 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 었다. 그리고 군사인원 의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 정 제13항 2목을 체계적

으로 유린하고 침략무력 을 확대하여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이 로써 미국은 조선반도에 서의 평화보장체계를 확 약한 정전협정의 핵심 조항들을 완전파괴하는데 로 나아갔다.

1907년의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 제40조와 1969년에 채택 된 《조약법에 관한 원협 의》 제60조 1항에는 한 당 사국이 쌍방조약상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경 우 다른 당사국은 그를 리 유로 하여 해당 조약의 효 령을 소멸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날로 더욱 로골 화되는 북침핵전쟁책동에 의하여 조선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미국은 공화국앞에 지 니고있는 핵위협금지의 무까지 란폭하게 유린하 며 침략전쟁연습을 감행 하였다.

이미 공화국과 미국사 이에 1993년 6월 11일 에 채택된 《조미공동성 명》, 1994년 10월 21일 에 체결된 《조미기반합 의문》 등 핵무기의 반입 과 핵위협을 금지하는것 을 골자로 하는 조약들이 채택되었다.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에서 는 제약쌍방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뿐아니라 핵으로 위 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체결한 이러한 조약들에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도 리행한것이 없다.

오히려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날로 더욱 증 대시키고 해마다 남조선 에서 대규모북침전쟁연 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었다.

결국 조미사이에 체결 된 조약들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린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이러한 행위는 조미 두 나라가 수락하 여 리행하고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지닌 조약들을 일 방적으로 서슴없이 무효 화시킨 란폭한 불법행위 이다.

《키 리졸브》, 《독수 리》와 같은 침략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전쟁 의 화약내를 풍기는 미 국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장본 인이며 범죄자이다. 전 쟁으로 태어나고 침략으 로 살찌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평온한 국제사회 를 파괴하는 범죄자로서 응당히 국제심판대에 올 라야 한다.

황금철

기자: 최근 남조선당국은 《합동대책반》이니, 《개성공단기업특별지원반》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어놓고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였던 기업들을 상대로 《구제》놀음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지금 입주기업들은 당국이 떠드는 《보험금지급》으로 자기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수 없다고 아우성치고있다.

한길남: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개성공업지구폐쇄로 인해 입은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응당 보상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남조선당국은 지금 《보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험금지급》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다. 한마디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저들과는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이 떠드는 《보험금지급》문제를 놓고보자. 일부 입주기업들이 가입한 남북경제협력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보험대상을 설비, 건물 등 고정재산으로 한정시켰으며 투자액의 90%한도에서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투자액이

640만US\$를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에 한해서는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으며 초기투자때 신고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새로 투자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투자는 계산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거기다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더니 124개의 입주기업 가운데서 보험가입기업은 78개뿐이며 나머지 46개 기업은 가입하지 못하였다. 또 개성공업지구에서 봉사사업을 하던 은행지점, 식당, 세탁소 등 83개에 달하는 영세한 봉사업체들은 보험가입은 고사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 들어있지조차 못하다니 보험금을 받을 꿈도 꾸지 못하고있다.

이 보험금이라는것도 공업지구가 재가동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지난 2013년에 있는 개성공업지구잠정중단때에 보험금을 받았던 59개 기업중 14개 기업은 아직도 반환을 못해 빚으로 남

아있다고 한다. 지난 24일에도 남조선당국은 입주기업들이 집계해낸 최소 8152억원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객관적증빙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환원이라도 깎아내리려고 입주기업들을 몰아세웠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남북경제협력보험에 의한 보험금지급》이란 몇푼의 돈으로 생색이나 내보려는것으로 대부분 입주기업들이 투자금전액을 전혀 보상받을수 없는 《유명무실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

기자: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은행대부를 통한 지원》이라는것도 따지고보면 빈 허울뿐이 아닌가.

한길남: 그렇다. 남조선당국은 《무담보신용대출》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은행들을 동원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부도 주고 이미 받은 대부금의 상환기일도 연기

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령세기업에 불과한 개성공업지구입주기업들에게는 그 모든것이 《빛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주기업들의 평균부채비율이 533%인데 이는 남조선중소기업평균부채비율 143%에 비해볼 때 대정상태가 대단히 나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에 무상지원이 아니라 대부의 형태로 지원을 주면 빚만 늘어나게 되어있으며 이미 받은 대부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못하는 조건에서는 갚을길이 없게 된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업지구잠정중단때 500만US\$의 대부지원을 받았던 어느 한기업가는 상환독촉에 못이겨 가산을 팔았으며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은행의 빚독촉에 시달리며 대부금의 리자나 겨우 갚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한 기업가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

난 2013년 개성공업지구 잠정중단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정부)가 입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말했지만 한푼도 못 받았다. 보험금을 반납할 형편이 안되어 반납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VIP(현 집권자)가 직접 반대해 그마저도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실패성없는 대책만 늘어놓고있다.》고 당국을 맹렬히 비난했는가.

기자: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지금 입주기업들에 부지도 제공하고 세금납부도 연기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기업들을 얼려넘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한길남: 입주기업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처럼 개성공업지구의 첫째가는 경제성은 인건비가 낮으면서도 노동력의 질이 높은데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의 공업지구와 대비해볼 때 우리 근로자 1인당 기업의 비용부담액은 35~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남측기업

가들은 거기에다가 북의 근로자 100%가 고등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있고 70%이상이 기술습득능력이 높은 20~30대로 이루어져있어 다른 나라보다 노동생산성과 품질력이 훨씬 높다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만 한 경제특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반대로 남조선당국이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남조선내의 《산업단지》들의 땅값은 개성에 비해 10~15배, 세금종류와 세금액도 3배이상에 달하며 로임도 개성공업지구

에 비해 10배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85%가 제품주문자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것으로 하여 주문계약을 어긴 손해배상금 5억US\$, 신용도 하락과 같은 무형자산피해액, 새로 생산기지와 판로를 개척하는데 드는 100억US\$이상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 한마디로 남측당

국이 떠드는 《경영부지체공과 세금납부연기》라는 것도 입주기업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떠미는 《병주고 뺏치는 처방》인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이른바 《대책》을 두고 《연발에 오줌누는 격》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으며 입주기업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뚫고 《정부》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 들수록 남조선보수파당이 떠드는 《대책》이라는것이 민족공동의 재부를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결판내내다가 기업가들을 사지판으로 몰아넣은 만고죄악을 가리워보려는 가스통고 흉악한 《악어의 눈물》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

한길남: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하면서 제때에는 《빠아픈 제제》를 떠들어댔지만 도리어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였던 남측기업만 사지판으로 내모는 격이 되었다.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병 주고 뺏치는 간사한 《구제》 놀음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한길남과 기자가 나는 대담 \*

## 민족의 통일열망을 짓밟은 반통일대결 《정권》 (2)

# 《인권》을 코에 건 동족대결소동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에 그 무슨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군대와 인민은 물론 공화국을 다녀간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후 지난 3년간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제도를 전복할 어리석은 야망에 분별없이 날뛴으로써 북남관계에 엄청난 장애와 난관을 조성해왔다.

그 앞장에 서서 《인권》소동을 부채질한것이 바로 현 집권자이다. 그는 《대통령》병거지를 쓰기전부터 《북인권에 대해 침묵하는것은 죄악》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인권문제》를 조작해내기 위한 대결소동에 앞장서왔다. 집권후에도 《국무회의》,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8.15기념사》,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상황》이니, 《심각한 우려》이니 하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발벗고나섰다. 그가 집권후 공화국에 대

해 《굶주림》이니, 《인권유린》이니 하는 악담을 퍼부은 회수는 공식보도된것만 해도 수십차례 달한다.

머리끝뒤에서 부은 구정물이 발뒤꿈치까지 흐른다고 수하졸개들도 경쟁적으로 반북 《인권》소동에 광분하였다.

보수당국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북인권문제해결》을 핵심과제로 쏘아박았는가 하면 통일부와 정보원, 외교부 등 부, 처들이 저마끔 나서서 《북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불굴의 노력과 기를 기울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리었다. 심지어 남조선내부의 인권유린실태를 조사장악해야 할 《인권위원회》라는것까지 나서서 산하에 《북인권특별위원회》, 《북인권기술폭관》, 《북인권인센터》 등의 모략기구들을 둔 《북인권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모략소동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악질 《탈북자》들을 내세워 거짓증언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북인권문제》를 악랄하게 왜곡날조해내고있다. 2014년 10월 《국회》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당국은 정보원과 통일부는 물론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북남관계와 관련이 없는 《정부》기관들까지 동원하여 해마다 수십만US\$의 자금을 쓰러기들에게 쥐여주면서 거짓증언을 강요하고있다. 하여 죄를 짓다 못해 자기를 키워준 조국과 부모처자마저 배반하고 도주한 신동혁(본명 신인근), 박상학, 박연미와 같은 인간추물들이 남조선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거짓증언을 받먹듯 하고있다. 오죽했으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조차 《〈탈북자〉들이 경쟁적으로 북인권실상증언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사실상 당국이 쥐여주는 돈을 바라기때문이다. 〈탈북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는 없다. 〈탈북자〉들의 거짓증언과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당국의 태도로 북의 인권실상이 남

조선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이루어보려고 같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박근혜는 지난 3년간 외국행각이나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북인권문제》를 빼놓지 않고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국제사회의 우려》

니, 《렬악한 북인권상황 개선》이니 하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위한 《국제적공조》에 앞장섰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날뛰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과 모략으로 일관된 보수패당의 끈질긴 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는 끝끝내 《북인권조사위원회》라는것이 조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른바 《북인권조사 보고서》라는것을 날조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제69차 유엔총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비롯한 유엔회의장들에서 박근혜와 윤병세를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이 앞장에서 《북인권》에 대해 강변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북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뛴것은 잘 알려져있다.

심지어 보수패당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추진할 목적

으로 나아가자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 헐뜯는 것과 같은 모략소동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뢰》를 떠들어온 현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인권문제》를 남조선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이루어보려고 같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박근혜는 지난 3년간 외국행각이나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북인권문제》를 빼놓지 않고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국제사회의 우려》

니, 《렬악한 북인권상황 개선》이니 하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위한 《국제적공조》에 앞장섰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날뛰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과 모략으로 일관된 보수패당의 끈질긴 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는 끝끝내 《북인권조사위원회》라는것이 조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른바 《북인권조사 보고서》라는것을 날조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제69차 유엔총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비롯한 유엔회의장들에서 박근혜와 윤병세를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이 앞장에서 《북인권》에 대해 강변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북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뛴것은 잘 알려져있다.

심지어 보수패당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추진할 목적

으로 나아가자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 헐뜯는 것과 같은 모략소동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뢰》를 떠들어온 현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인권문제》를 남조선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이루어보려고 같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박근혜는 지난 3년간 외국행각이나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북인권문제》를 빼놓지 않고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국제사회의 우려》

니, 《렬악한 북인권상황 개선》이니 하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위한 《국제적공조》에 앞장섰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날뛰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과 모략으로 일관된 보수패당의 끈질긴 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는 끝끝내 《북인권조사위원회》라는것이 조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른바 《북인권조사 보고서》라는것을 날조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제69차 유엔총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비롯한 유엔회의장들에서 박근혜와 윤병세를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이 앞장에서 《북인권》에 대해 강변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북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뛴것은 잘 알려져있다.

심지어 보수패당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추진할 목적

으로 나아가자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 헐뜯는 것과 같은 모략소동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뢰》를 떠들어온 현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인권문제》를 남조선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이루어보려고 같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으로 나아가자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 헐뜯는 것과 같은 모략소동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뢰》를 떠들어온 현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인권문제》를 남조선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이루어보려고 같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박근혜는 지난 3년간 외국행각이나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북인권문제》를 빼놓지 않고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국제사회의 우려》

니, 《렬악한 북인권상황 개선》이니 하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위한 《국제적공조》에 앞장섰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날뛰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과 모략으로 일관된 보수패당의 끈질긴 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는 끝끝내 《북인권조사위원회》라는것이 조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른바 《북인권조사 보고서》라는것을 날조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제69차 유엔총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비롯한 유엔회의장들에서 박근혜와 윤병세를 비롯한 남조선보수패당이 앞장에서 《북인권》에 대해 강변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북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뛴것은 잘 알려져있다.

심지어 보수패당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추진할 목적

으로 나아가자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고 헐뜯는 것과 같은 모략소동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뢰》를 떠들어온 현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인권문제》를 남조선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이루어보려고 같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표에게 정역형을 들썩였으며 지난해에는 《자주민보》를 강제로 폐간시키는 파썸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 범민련 남측본부성원, 대학교수, 영화감독 등 각계층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악명높은 《보안법》의 《북찬양고무죄》에 걸려 체포, 탄압하는 횡포를 부리었다. 지어 2013년에는 남조선에 류학은 외국학생까지 《북찬양》 혐의로 강제추방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인간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마저 빼앗고 정의와 진실을 마구 짓밟으며 남조선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 회색의 인권유린범죄자들이 도리어 공화국의 참담고 신성한 인권에 대해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의 산물이다. 그에 추종하여 《인권》을 코에 걸고 악랄하게 감행된 박근혜패당의 대결소동은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나중에는 오늘과 같은 파국상태를 몰아온 기본원인중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총선》에 비친 미국의 검은 마수

남조선에서는 오는 4월에 《국회》의 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남조선에서 극도의 정치혼란과 위기가 고조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든 현 상황을 보면서 각계층 인민들은 친미사대와 반북대결, 당리당략과 부귀영달에 물젖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 새 생활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박근혜의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다툼만 일삼고 있다.

당의 정체성은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들에 의해 좌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진보적인 정치와 북남화해정책을 요구하는 민심과는 어긋나게 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과 야권분열책동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이 당의 주요자리에 들어앉은 김종인과 리상돈의 친미사대적기질과 련관되어 있다.

김종인으로 말하면 1970년대부터 10여년동안 미국식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남조선에 설파한 친미학자모임인 《서강학파》에서 핵심적역할을 놀았으며 로태우집권시기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

면서 인연을 맺은 미국대통령 부처의 사진을 지금도 사무실에 걸어놓고 숭배하고 있는 친미분자이다.

리상돈 역시 두차례나 미국에서 류학하면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레간의 혁명》 등 미국식가치관과 양키문화를 서술한 미국도서들을 번역출판하여 남조선에 승미사상을 퍼뜨린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세계관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로 미국대통령 레간을 꼽고 있다.

이런 인물들이기에 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 들어가자마자 《북계명론》과 《해별정책실폐론》을 떠벌이면서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쇄책동에 동조하는가 하면 당내부에 로선갈등과 리념론난란을 일으켜 당내부를 와해시키고 있다.

특히는 《총선》을 앞둔 이때 《당분간 야권련대는 없다》, 《거대량당체를 깨야 한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책동을 막기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련대련합을 반대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태는 많은것을 의미하게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정치를 주무르는 기본주자가 미국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야당들의 련대련합을

막아 친미보수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얽게 하는 한편 장차 야당의 체질을 보수우경화로 완전히 바꾸어 다음기에 누가 집권하여도 친미보수 《정권》이 지속되도록 해보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련대적으로 남조선의 주요선거때마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거기에 간섭의 마수를 뻗쳐왔다.

실제로 민주화의 기수로 자처하던 김영삼이 하 루아침에 돌변하여 군사독재세력과 한이불에 든 고 더우기 1988년 4월에 있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남조선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조성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야권을 분열시키고 친미보수세력의 련합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민정당》의 로태우와 《민주당》의 김영삼, 《공화당》의 김종필을 미국에 불러다가 3당통합을 은근히 시주하는 한편 당시 남조선 사재 미국대사인 릴리를 소환하고 일본에서 보수련합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그레그를 신임대사로

파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레그의 총감독임에 1990년 1월 22일 청와대뒤뜰방에서 《3당통합》이라는 정치야합국이 연출되었으며 그 결과 2년 후 김영삼은 《대통령》 병거지를 쓸수 있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잡지 《말》은 《미국의 김영삼 《대통령》 공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1990년대의 최대의 정치적사건으로 기록된 3당통합 즉 《민자당》의 조작은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조종과 막후공작의 결과라고 폭로하였다.

리명박과 현 집권자가 《대통령》 병거지를 쓰게 된것도 친미보수 《정권》의 출현과 연장을 고대하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비밀공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김종인과 리상돈의 야당개입은 의미심장하기 그지없다. 야당과 진보개혁세력을 사본오렐시켜 친미보수 패거리들이 장기집권하는 것, 이 목표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이 뒤뜰방에 앉아 음흉한 모의를 벌리고 있다.

남조선의 민주개혁세력은 친미보수체제의 연장을 꾀하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와 보수집권세력의 교활한 술책을 똑바로 꿰뚫어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여성일만이 가지는 본성이다. 그래서인지 3년전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있을 때 남조선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가 국민생활을 잘 돌봐줄것이라 고 어느 정도 꿈을 가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큰 오산이었다.

왜냐하면 《유신》독재자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 받은 박근혜는 여성의 본능마저 상실한 맹행동물적체질과 히스테리적광증을 가진 또 하나의 독재자이기때문이다.

그의 독재적기질이 어느 정도인가.

《〈새누리당〉 대표는 땅대표이다. 당대표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땅 대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신이 되었다.》, 《정치는 유신, 경제는 등신, 복지는 배신, 남북관계는 불신, 인 권은 망신, 미국에는 굴신, 로동자탄압은 악마의 화신》.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이 말은 그것을 가히 짐작할수 있게 한다.

박근혜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민주주의》 허울을 집어 던지고 애미를 그대로 빼어담은 폭군기질로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억누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내던졌다.

한때 자기의 입과 손발을 대신하던 측근들을 자기와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여 가차없이 차버린 박근혜이다.

심복들조차 번덕스러운 박근혜의 독선과

전횡에 제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기 측근들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이런 잔인성을 가진 박근혜에게는 내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들이 제탓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부 아래것들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잦은 독설과 신경질로 행패질만 일삼고 있다.

이것은 종말을 직감한 피해망상증 환자의 발작 증세라고도 할수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의 독설과 신경질이 앞으로 더 심해져 남은 2년내내 《총선과 불통의 정치》가 계속될것이라고 야유조소하고 있다.

여성으로서 웃음보다 독을 품고 신경질만 부리면서 불통, 불만, 독재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민생을 돌보고 《복지》를 가져다준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의 집권 3년에 걸치는 독단과 전횡, 파썸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는 이미 망조가 들었 다. 지금으로부터 37년전 《유신》독재자가 비참한 운명을 고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는 오늘의 현실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 망조가 들었다

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불법화 등 진보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쯤은 식은죽먹기였다.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의 독단과 전횡은 정사를 혼란한다는 《국회》를 《식물국회》, 《날치기국회》로 명성 더욱 떨치게 하고 있다. 박근혜의 《포용과 소통》의 부족과 오만함의 극치는 예비인 《유신》독재자의 비명횡사로 하여 인간세상을 등지고 오래동안 혼자 살아오며 시집도 못 간 박근혜의 고독증과 고약한 심술로 부터 나온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박근혜이기에 최근 남조선에서 나라나고

본사기자 황진옥



##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40년전인 1876년 2월 27일은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인 위협과 공갈, 기만과 협박의 방법으로 침략적이며 예측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한 날이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변영》을 위해 아시아의 판문인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반동지배층은 《교섭》의 방법으로 조선침략의 문을 열어보려던 기도가 좌절되게 되자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의 방법에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1875년 5월 군함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발포연습이라는 구실밑에 폭탄을 향하여 함포를 마구 쏘아댔으며 우리 나라의 동해안일대를 미친듯이 돌아치며 각종 군사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운양》호의 침략부리들은 그해 9월에는 《청국우장까지의 항로를 측정》한다고 하면서 강화도부근에 기어들었으며 초지진포대근처까지 접근하여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점령해보려고 발광하였다.

당시 초지진은 서울을 지키는 서해의 중요한 군사요새로서 조선봉건왕조의 사천승인이 없이는 다른 나라의 배들은 물론 조선의 배들도 드나들수 없는 곳이었다.

하기에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여 일본침략자들에게

세찬 불벼락을 안겨 단호히 물리쳤다.

이것은 너무나도 웅대한 자위적초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때를 만난듯이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공공연한 무력간섭에 나섰다.

1875년 9월 1일 《어진회의》라는데서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조선과 불평등적이며 예측적인 조약을 강압체결할것을 모의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6년 1월 7칙의 군함과 800여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침략함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봉건왕조를 위협공갈하였으며 2월 27일 끝끝내 12개 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조작하였다.

조일간의 《수호조규》라는 명칭을 띠었지만 《강화도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는 침략적이며 예측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에서 일본침략자들은 《자유무역》과 이를 더욱 구체화할때 대한 조항을 만들어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자본침투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사실상의 제외법권을 규정함으로써 조선봉건왕조의 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를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조선연해에 대한 일본의 초량 및 지도작성자유보장조항을 비롯하여 공사 및 령사주둔

권, 보충조약체결권 등을 박아넣었다.

이처럼 《강화도조약》은 일본침략자들에게는 조약권리만을 부여하고 조선에는 일방적인 굴욕적의무만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침략자들은 이 조약을 구실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칠수 있게 되었으며 1905년에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쳐왔다.

《강화도조약》의 강도적결과정과 40여년간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반인륜적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는가를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이 조작된지 140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대법죄들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성하고 사죄배상할 대신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대조선제침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더우기 격분할것은 《유신》독재자의 친일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남조선의 현 집권당국이 일본의 과거죄악을 문제시하고 추구할 대신 로골적 친일대국행위를 일삼으면서 일본반동들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발광

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 략탈권리만을 부여하고 조약의무만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침략자들은 이 조약을 구실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칠수 있게 되었으며 1905년에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쳐왔다.

《강화도조약》의 강도적결과정과 40여년간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반인륜적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는가를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이 조작된지 140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대법죄들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성하고 사죄배상할 대신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대조선제침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더우기 격분할것은 《유신》독재자의 친일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남조선의 현 집권당국이 일본의 과거죄악을 문제시하고 추구할 대신 로골적 친일대국행위를 일삼으면서 일본반동들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발광

## 청춘이라 죄송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1월 8일 충청남도 천안시 한 모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청년 A씨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대학 졸업후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온 그는 지난해 1월 식구들에게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약 1년간 《가짜출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2000만원 상당의 빚까지 지게 되자 극서는 민족이 불행과 재난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현실은 식민지과거죄악을 한사코 부정하고 군국주의의제침에 혈안이 되고있는 일본과 그에 아무굴종하고 적극 협력하여 동족대결책동에 앞장서는 남조선의 친일대국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이 불행과 재난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국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제침야망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일본의 과거범죄를 총결산하고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은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대동아공영권》 실현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성실히 사죄하고 배상하여 침략과 략탈의 어지러운 과거와 하루빨리 결별해야 할것이다.

박사 강명석

하지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실 때마다, 저녁때 《다녀왔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죄스러워 속으로 《죄송하다.》 고 되뇌인다.》 는것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못한 20대 거의 모두가 비슷한 심정일것.》 이라고 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청년실업률은 9.2%. 《〈한국〉 로동사회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질실업률이 20%를 넘어설것》 이라고 분석한다. 청년 10명중 2명은 《죄송한》 마음으로 밥

을 먹고 《죄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는 뜻이다. ...

2007년 책 《88만원세대》를 출간한 저자 우석훈, 박권일씨는 당시 임금 88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20대의 삶을 소개하며 《지금의 10대와 20대가 처한 상황은 아마 시간만 흘러서 20년이 지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것이고 20대의 운명이 10대에게 그대로 이어져 더욱 열악하게 하향 확대재생산될것》 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있는셈이다.

(남조선잡지 《주간동아》 2016년 1월 27일호에서 전재)

본사기자

## 성노예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굴욕 《합의》를 패격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얼마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독한 굴욕 《합의》를 패격하였다.

단체는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이루어진 성노예문제 《합의》는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을 선언하는것은 폭력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당시 전횡터에 끌려갔던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 실종상태라고 하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에서 상대국가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피해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해결이 아니다.》 고 주장하고있지만 당국이 이를 묵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 — 연극 《리순신장군》을 보며 —

침략의 무리들이 다시 댕댕다 댕댕다

지금 평양의 국립연극극장에서 연극 《리순신장군》 공연이 각계층 사람들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있는 연극은 나라위해 한몸바치는 불타는 애국심과 뛰어난 군사적재능을 발휘하여 왜적을 물리치고 바다를 지켜낸 애국명장 리순신(1545—1598)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다.

연극에서 리순신 장군을 비롯한 군사들과 인민들은 력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 적함과 치렬한 싸움을 벌려 세계해전사에 기적으로 알려진 명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둔다. 당시의 사실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전형화한 연극은 나라를 지켜 멀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거세찬 투쟁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하며 침략자들은 쓰디쓴 참패를 당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는 되풀이된다고 했

던가. 지금 조선반도로는 400여년전 남해바다로 기어올랐던 왜적의 무리와는 대비할수 없이 방대한 미국의 침략무력이 쓸어들고있다. 핵동력잠수함과 스텔스전투폭격기들과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 무력들을 비롯한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전개되고있다.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에 넘어 나간 미국이 전대미문의 모든 《선택안》들이 백을 추지 못하게 되자 최후발악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3월초부터는 수십만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사상최대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목적은 단 하나,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한 군사적압살책동으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어떻게 하나 《붕괴》시키자는데 있다.

허나 그들은 크게 오산하고있다. 공화국이 적은 배로 수백척에 달하는 왜놈들의 배와 맞서야 했던

400여년전의 조선이 아니라라는것을 모르고있다. 오늘의 선군조선은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원자탄에 이어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핵강국,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침략자들의 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 썰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을 가진 천하무적의 백두산대국이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핀다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세상이 상상할수 없는 보복전으로 미국이라든가 땅덩어리를 재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드림없는 결사항전의 의지에 충만되어있는 일심단결의 대부대이다.

하기에 연극 《리순신장군》을 본 평양326전선공장 노동자 부철수는 《침략자들의 분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자들을 온 겨레의 과감한 투쟁으로 단호히 짓밟아버려야 한다는것을 연극을 통하여 다시금 새겨안았다.》고 소감을 펴력하였다.

허도선



## 《메아리》 홈페이지개설을 알려드립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무소속 민간단체 《아리랑협회》는 《메아리》 홈페이지(www.arirang—meari.com)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는 3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메아리》 편집국

## 나날이 활기를 띠는 소묘추진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2006년에 첫막을 올린 전국소묘추진이 여섯번째 년회를 새기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추진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끈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형상한 작품들이다.

《제일 기쁜 날》이 세쌍둥이들을 품에 안아 따뜻한 정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위인적 품모를 형상하였다면 《아버지!》는 눈내리는 설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며 원아들을 사랑의 한포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하고있다. 또한 《병사들의 친어머니》는 병사들의 친어머니가 되시여 몸소 국맛까지 보아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영상을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추진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눈부신 현실을 반영한 《로동당 만세!》, 《우리 집》, 《행복의 물궁전에서》,



《과일향기》, 《달려가자 미래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백두청춘들》, 《승리의 보고》, 《혁명군가》 등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추진장에는 《새 집의 주인》, 《사랑의 요람》과 같이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의 행복담찬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과 《푸른 숲의 주인》,

《이른아침》, 《새싹》과 같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 《결승》, 《체육의 날》과 같이 날로 고조되는 대중체육열기를 보여주는 작품들, 《고려박물관에서》, 《선죽교의 정월대보름》 등과 같이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들도 출품되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실로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힘있게 내달리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었다.

이번 추진에도 미술을 전문하는 창작가들은 물론 들끓는 로동현장과 교정에서 미술창작에 전념하고있는 학생들, 지어 유치원어린이들이 창작한 작품들도 많이 출품되었다.

인민들을 제일로 위하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에서 참다운 문명의 창조자도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도 다름아닌 근로하는 인민임을 제6차 전국소묘추진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 사화

## 붉은 갈 (2)

글 리일룡, 그림 김윤일

《왕제마마, 어서 일어나시오이다.》  
《상감께 내가 몸이 불편해서 누웠다고 알려주오이다.》  
구리내가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 바쁘게 여러 신하들이 또 보해를 데리러 왔지만 허탕이었다. 드디어는 놀지왕이 보해에게 왔다.  
《보해야, 웬일이냐?》  
보해가 기다렸다는듯 참고참았던 눈물을 활짝 쏟으며 왕의 발치에 엎드렸다.  
《상감마마, 용서하시오이다. 절 용서해주사오이다. 상감마마는 일국의 임금이기 전에 아버지 같은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막내동생을 아직도 저바다건너 왜땅에 내버려두고있사옵니까. 야속하오이다. 정말 섭섭하오이다. 상감마마께서는 저의 걱정보다 응당 미해걱정을 했어야 하오이다. 전 사실 삼랑주만이 절 데리러 왔을 때 미해도 다른 사람이 데리러 떠났을 줄 알았소이다. 미해를 볼생각에 천리길도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알길 없으니...》  
놀지왕이 딱한 자리를 면할길 없어 입만 다시며 묵묵부답으로 서있는데 벌보말과 구리내가 싱긋이웃듯 보해에게 다가와서 《왕제, 진정하시오이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왜 자꾸 이러시오. 그러지 않아도 국사로 속쓰시는 상감마마이시옵네...》하며 어서 마음을 돌리기를 간절히 청원하나 막무가내였다.  
《상감마마, 이 나라에 충신이 이리도 없소이까. 박복하오이다. 덕이 없소이다.》  
보해의 하소연소리는 온중성에 울리여갔다.  
그날 밤 놀지왕은 그일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보해의 말이 옳다. 난 형제간의 의리를 상실했다. 막내의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며 이리도 편히 할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쓰려와 견딜수 없었다. 미해가 볼모로 떠나던 16년전의 그날

이 어제런듯 생생히 떠올랐다. 가슴속에 웅이처럼 박혀 때없이 그를 괴롭히는 그 일.  
...그 봄날은 류다르게 날씨가 따뜻했다. 놀지는 두 동생을 데리고 궁성밖 안침한 곳에서 제기차기를 하고있었다. 나물왕이 세상을 떠나자 퍼그나 외로와진 그들 형제들이었다. 지금의 실성왕은 그들과 같은 피골이 아니였고 막연하게 김알지를 같은 조상으로 모실뿐이었다. 나물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응당 그위를 왕자들이 이어야 하였으나 나이들이 어리랏에 정사를 할수 없다고 하여 그가 왕이 되었다. 실성왕은 즉위 초기에는 그들을 위해주는듯 하더니 그즈음엔 내놓고 박해하고있었다. 대궐에서도 내쫓았고 그들과 가까이하는 신하들에게까지 눈총을 쏘았다. 그것은 형제의 정을 더욱 차별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미해가 이겼다.》  
《아니야, 내가 이겼다.》  
《옳다, 옳다. 보해도

이겼다.》  
놀지는 우정 동생들에게 저주며 사기를 돌고주었다. 한낮이 될무렵 일리촌간 구리내가 웬일인지 늙은 몸을 덜덜 떨며 나타났다. 그는 잠시동안 이들에게 서서 억이 막힌듯 주저하다가 놀지의 재촉을 받고서야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상감께옵서 셋째도련님을 부르시옵니다.》  
부왕이 죽고 임금이 바

를 찾아뵈거라.》  
미해는 선뜻 가려 하지않았다.  
《싫어. 나만 왜... 가도형과 함께 갈테야.》  
놀지는 가기 싫어 청얼대는 동생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어서.》  
그런데 미해를 앞세운 구리내가 가면서 눈굽을 짖었다. 놀지는 심상치않은 생각에 구리내에게 달려가서 다급히 물었다.



꾸니 왕자라는 말도 없었었다.  
《미해를요?》  
놀지는 와들 놀라 구리내를 쏘아보았다. 왜서인지 가슴이 쿵쿵 뛰고 불안스러웠다. 허나 어이하랴. 지엄한 어명인데야. 그는 늙음에 정신이 없는 미해를 떠밀었다.  
《얼른 가서 상감마마

《대감마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련님, 셋째도련님이 왜땅에 볼모로...》  
《예에?!》  
놀지는 억이 막혀 몸이 딱 굳어졌다. 볼모라니?! 《상감마마께서 화평의 표시로...》  
더 물으려 하자 구리내 는 고개를 돌리고 말을 피

하며 천천히 궁성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안된다. 꼭 가야 할 일이라면 내가 대신 갈테야! 놀지는 보해를 데리고 대궐문앞에 지켜서있었다.  
저물녘에 미해는 왜땅에서 온 사신과 가마를 함께 타고 수많은 시위군사들이 가락지처럼 뱅뱅 에워싼 속에 나왔다. 그래도 어느결에 두 형을 알아보고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눈물이 글썽해서 애원하였다.  
《형, 나 어데두 가지 않을래. 형들과 같이 있겠어.》  
《미해야, 이 어이된 일이냐.》  
놀지와 보해가 시위군사들속에 뿔뿔이 떨어져 울고있는 미해를 제 손으로 바래워야 하는 놀지는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만 비오듯 쏟아냈다. 그때는 다물랐을망정이지 이것이 왕의 아버지였던 나물왕에 대한 앙갚음으로 세형제를 하나하나 없애버릴 음모의 한 고리였음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후에 이것을 안탕에 동생을 그리는 왕의 애라는 마음은 어디에 비할수 없을만큼 컸다. 아마 그것을 땅위에 쌓을수 있다면 큰 산이 될것ियो, 바다에 쏟아놓는다면 평지가 되었으리라.  
왕이 된 후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미해를 적국에서 데려오려고 애썼지만 원래 간악한 오랑캐족속들이라 좀처럼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다.  
왕은 어전회의에서 이 일을 다시 토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파인이 지난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고통을 생각한것이니 총과 화살을 건넌으로 여기는 신하들일진대 심사숙고하여 들으리라고 보오. 다 아정해진 일이었고 왕명을 거역할수는 없었다. 서술이 날선 도끼날같은 실성왕의 처사에 불복하면 목숨이 위태로웠다. 시위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울고있는 미해를 제 손으로 바래워야 하는 놀지는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만 비오듯 쏟아냈다. 그때는 다물랐을망정이지 이것이 왕의 아버지였던 나물왕에 대한 앙갚음으로 세형제를 하나하나 없애버릴 음모의 한 고리였음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